

# 《초사》에서 《해동사부》까지 I

—《해동사부》는 누가 編制하였는가?—

박 세 욱\*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申最 일 가능성 |
| II. 《해동사부》를 김석주가 편집하지 않았다? | IV. 나가면서      |

## I. 들어가며

《해동사부》는 《초사》의 전통과 정신을 잇고 있다. 유배된 문인들의 목소리, 《초사》는 저 멀리 屈原·宋玉·賈誼·王逸로 이어지면서 뜻을 잃은 관리들,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과 불만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자리매김에는 庾信·沈佺期·張說·李白·杜甫·韓愈·柳宗元·司馬光·朱熹 등의 손에서 환기되면서 《초사》의 눈물을 정형화 하게 된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 좌천이나 유배를 경험하면서 고향의 슬픔에 공감하였고, 전설속의 명소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상징적인 목소리로 아득한 옛날 절망적인 시인의 눈물을 모방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17세기 조선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해동사부》인 것이다. 한편 《해동사부》는 우리나라 辭賦문학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이자, 순수하게 우리나라 辭賦문학 작품으로만 선정되어 있는 유일한 전문 辭賦集이다. 물론 각

\* 경북대학교 강사

각의 작품들은 중국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지만, 수록된 각각의 작품들은 우리나라 문인들의 눈물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진솔한 목소리로서, 저 瀟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슬픔의 메아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비록 고려와 조선에서 유행했던 형식적인 辭賦의 모습에 얽매임이 크건 작건, 뜻을 잃은 사람들의 애련, 다가오는 운명에 대한 절규, 암시적이면서도 절도 있는 진실한 이품들이 문인들의 화려한 출세와 강한 대조를 이루며, 우리나라만의 순수한 슬픔과 불만의 문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해동사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며 공통적인 정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해동사부》의 판본은 奎章閣에 두 개의 판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필사본(奎 1447)이고, 다른 하나는 戊申字 활자본(奎 11536)이다. 이 필사본과 활자본의 편제는 동일하지만, 공히 序跋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編者가 누구인지 사실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金錫胄(1634~1684)의 문집인 《息庵遺稿》에 이 책의 서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專門 辭賦文學 選集을 編制한 주인공은 김석주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고 있다. 과연 김석주가 이 선집을 편집한 것인가? 김석주가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그가 選集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편집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변증하는데 본고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자가 제목에서 “《초사》에서 《해동사부》까지”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초사》의 문학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었는지, 《해동사부》의 정확한 번역이 선행되어야 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연구는 그 출발점에 있다고 하겠다.

## II. 《해동사부》를 김석주가 편집하지 않았다?

《해동사부》의 작품 선정은 이미 《동문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다시 《別本東文選》의 편제상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작 《해동사부》란 선집에 대해서는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 불탄의 또는 폐배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문단뿐만 아니라, 정권에서도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진 김석주가 이 책을 편집한 것이라면, 어찌 이렇게 언급이 없는 것인가? 《해동사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지 김석주의 문집인 《식암유고》에 실려 있는 <海東辭賦序>라는 문장이 고작일 따름이다. 여기에서 이 서문을 꼼꼼히 원문과 대조하여 읽어보면,

<海東辭賦序> 1)

세상 사람들 모두 <이소>는 초나라 사람의 음(音)이라고 알고 있으나, 거짓으로 미친 척[佯狂<sup>2)</sup>] 했던 [箕子]의 <麥秀의 노래><sup>3)</sup>가 바로 <懷沙>나 <哀郢>의 濫觴임을 알지 못한다. 慶卿의 <역수의 노래><sup>4)</sup>에 이르러서는, 朱子가 그것을 일컬어 “비장하고 격렬하며 초나라의 것은 아니면서 초나라의 것이다.”고 하였다. 무릇 仁과 賢이 스며들어 교화된 땅이고, 게다가 金臺<sup>5)</sup>와 長城으로 그 경계가 닿아있어,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 1) 《식암선생유고(息庵先生遺稿)》, 권 8.
- 2) 佯狂: 佯狂被髮,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짓 미치광이 노릇을 하였던, 殷 나라의 箕子를 두고 한 말임.
- 3) <맥수의 노래>: 일명 <傷股操>라고도 함. 은(殷) 나라가 망한 뒤, 기자가 옛날 은 나라 터를 지나다가 보니,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무성하게 보리 이삭이 켜진 것을 보고, 곡(哭)을 하자니 안 될 일이고 울자니 부녀자와 비슷하게 될 듯하여 이에 <麥秀歌>를 지었다고 한다. :  

麥秀漸漸兮,	보리이삭 싹싹 자라나고,
禾黍油油.	벼와 기장은 무성하기도 한데,
彼彼童兮,	저 교활한 아이는,
不與我好兮.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史記·微子世家》
- 4) 慶卿: 戰國時代 衛 나라 刺客인 荊軻, 荊卿을 말함. 형가는 본디 衛 나라 사람으로 燕 나라에 가 노닐면서 그곳에서 개백정[狗屠]일을 하였는데 筑을 잘 치던 高漸離와 친하여 날마다 燕에서 그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같이 즐겼다고 한다. 뒤에 연 태자 단(燕太子丹)의 부탁으로 그의 원수를 갚아 주기 위해 秦을 죽이려고 떠날 때,  

風蕭蕭兮易水寒,	바람은 쌀쌀하고 역수는 차갑기만 한데,
壯士一去兮不復還.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떠났는데, 그는 끝내 진 나라에 가서 실패하여 죽고 말았다 《史記 卷八十六》

[중국의] 문장 짓는 것을 익혔는데, 특히 辭賦로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 많았다. 그것이 어찌 <맥수의 노래>와 <역수의 노래>의 流風과 餘韻을 얻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난여름에 解職되어 閑居하면서<sup>6)</sup> 여러 후배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 여러 작가들의 辭賦를 두루 읽고, 그 소리가 조화롭고 작가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골라서 한권의 책을 만들었다. 작가로서는 고려조의 李文順<sup>7)</sup>에서부터 우리 외삼촌 春沼<sup>8)</sup>에 이르기까지 모두 27명이다. 그들의 문장은 <祖江賦>에서부터 <夢喻>에 이르기까지 모두 58편이다. 당나라의 李善이 <七發>을 논하여, 《楚辭》중에 <七諫>의 類라고 하였다. 그러한즉 <夢喻> 역시 辭의 流風이므로, 그것을 통칭하여 《해동사부》라고 하였다. 左海<sup>9)</sup> 문명의 땅, 수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고, 수백 세대나 아래에서 아직도 屈原과 宋玉을 宗主로서 의거하고, 班固와 揚雄을 거슬러 계승하므로 써, 초나라는 아니나 초나라의 것으로 충분히 불만한 것이 있다고 하겠다.

(世共知離騷爲楚人之音, 而殊不知伴狂麥秀之什, 卽懷沙哀郢之所濫觴. 至於慶卿易水一曲, 又是朱夫子所稱之爲悲壯激烈, 非楚而楚者也. 夫以浸沐仁賢遺化之鄉, 而且與金臺長城壤界相接, 則自昔東土之習爲文藻, 尤多以辭賦擅名於世者. 其無亦有得乎麥秀易水之流風餘韻而然者耶? 余於前夏, 解職居閑, 仍爲諸從輩所要, 遂遍閱東人古今諸家辭賦. 就揀其聲調諸雅, 能不詭於作者之旨者, 爲一帙. 人自麗朝李文順, 至我春沼舅氏, 爲二十有七. 文自祖江至夢喻爲五十有八. 夢喻者, 法七而爲者也. 唐李善論七發, 以爲楚辭七諫之類, 然則夢喻亦辭之流也. 總名之曰海東辭賦. 以見夫左海文明之區, 數千里之遠數百代之下, 尙亦有宗依屈宋, 踵躡班揚, 非楚而楚, 有足觀者云爾.)

이상에서 김석주는 명확히 辭賦에 대한 관심과 자신이 편집하게 된 동기와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문에서 김석주가 편집했을 것이

- 5) 金臺: 전국 시대 燕 나라 昭王이 천하의 賢士를 대접하기 위해 세운 黃金臺, 곧 燕京(현재의 북경)을 지칭함.
- 6) 이 문장은 《해동사부》가 언제 편집되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서 다음 단락에서 다시 언급할 것임.
- 7) 文順: 李奎報의 시호(諡號)임.
- 8) 春沼: 申最(1619~1658)의 호.
- 9) 左海: 우리나라, 海東을 말함.

라는 증거가 되는 “내가 지난여름 해직되어 한거할 때 [余於前夏, 解職居閑]” 라는 문장과 자신의 “의삼촌 춘소[我春沼舅氏]” 라는 다섯 글자이다. 이러한 확실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만으로 《해동사부》의 編者를 김석주에게 돌리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김석주는 과연 해직되어 한거할 때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金萬基(1633~1687)가 지은 <諡狀>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두 자료를 조사해 보면, 김석주가 부모의 상중기간을 제외하고, 과거 또는 사직으로 조정을 떠났던 것은 3차례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1) 1665년(현종 6, 32세), 1월에 修撰이 되었다가 李堦를 변호한 것 때문에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위의 서문에서 말하는 여름도 아니거니와 곧이어 3월에 부수찬·부교리에 임명된다. 2) 1681년(숙종 7) 11월 우의정 李尙眞의 상소로 인하여 면직된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곧바로 12월에 다시 예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복귀한다. 역시 위의 서문에서 언급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1682년 5월에 우의정으로서 李三錫의 疏斥을 받아 사직하였으나, 숙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도 조정을 떠나지 못했다고 실록은 쓰고 있다.<sup>10)</sup> 과연 그가 한가하게 해직된 여름은 언제인가? 사실 김석주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는 다른 목소리들로 구성된 《해동사부》를 편집할 만한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 김석주가 쓴 것으로 남아 있는 서문은 《식암유고》에 모두 19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이 편집한 책의 서문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10) 《조선왕조실록》 숙종 8년 4월 12일, “兵曹判書 金錫胄가 李三錫이 상소하여 배척하였기 때문에, 상소하여 사직하니, 우악하게 批答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김석주가 이삼석의 배척을 당하고 나서 漢陰의 강가에 정사(亭榭)를 크게 짓고 벼슬에서 물러가 될 곳으로 삼을 생각이었고, 정자의 이름을 각진(角巾)이라 한 것도 대개 이삼석의 疏 가운데에 있는 말을 쓴 것이었으나, 끝내 결단하여 물러가지 못하였다.”

<中興唱酬錄序>	전해지지 않음
<古文百選序>	전해지지 않음
<唐百家詩刪序>	전해지지 않음
<行軍須知序>	전해짐, 서문이 있음
<春沼子先生文集序>	전해짐, 서문이 있음.
<白谷集序>	전해짐, 서문이 있음.
<錦帆集序> <sup>11)</sup>	전해지지 않음.
<黃鐘集序>	전해지지 않음.
<黃秋浦先生集序>	전해짐, 서문이 있음.

이상에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들은 모두 김석주의 명확한 서문을 실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해동사부》에서는 그가 편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문이 책머리에 들어 있지 않고, 《식암유고》에만 따로 보이는가? 또한 다른 사람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쓴 서문들도 모두 남아있는데, 정작 자신이 편집한 《해동사부》에는 어찌하여 서문이 없이 전해지는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는 만에 하나 이 선집에 수록된 辭賦들의 내용들이 조정이나 임금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동사부에 실린 작품이 공통적으로 정서를 저자는 공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세 번째 《해동사부》의 작가 선정문제에 관한 의문이다. 김석주는 아버지인 金佐明(1616~1671)의 문집인 《歸溪遺稿》을 1671년 상중에 간행하였고, 1684년에는 할아버지인, 金堉(1580~1658)의 《潛谷遺稿》를 활자본으로 중간하였는데, 왜 이들의 작품은 선정되지 않은 것인가?<sup>12)</sup> 반

11) 《錦帆集》: 袁宗道(1560~1600)·袁宏道(1568~1610)·王稚登(1535~1612)의 장편 읍시 백여 수를 모은 골라 모은 선집.

12) 《歸溪遺稿》에는 <和歸去來辭>가 실려 있고, 《潛谷遺稿》에는 <登海嶠賦>·<哀江南賦>·<次濯纓感舊遊賦>·<歸山居賦> 등이 실려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 《해동사부》의 성격과 괴리되는 것도 아니다.

면에 1682년 자신의 외삼촌인 申最의 《春沼子集》을 간행하였고, 다시 이 선집에 그의 작품을 세편이나 수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며 시를 주고받았던 金萬基(1633~1687)·李端夏(1625~1689)·朴長遠(1612~1671)·申最(1628~1687)·자형인 趙顯期(1634~1685) 등과 같은 동시대의 문인들은 들어있지 않다. 게다가 김석주 자신도 38편의 사부 작품을 《식암유고》에 남기고<sup>13)</sup> 있을 정도로 왕성한 辭賦를 지었으면서 자신의 작품은 한 편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이 선집이 김석주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더해준다.

네 번째로 김석주와 같이 외척 서인 세력으로서 남인으로부터 조정을 지켰던 金萬基는 1684년 김석주가 죽자마자 바로 <諡狀>을 지어서 그의 《瑞石集》에 남아 있다. 바로 이 <諡狀>이 김석주의 생애를 알아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 《해동사부》를 찬했다는 언급이 없다. 한편 김석주에게는 아들 道淵만 있는데, 그는 鄭太和(1602~1673)의 막내아들 鄭載崙(1648~1723) 東平尉의 딸과 결혼을 하므로 정재륜과 김석주는 사돈지간이 된다. 그런데 정재륜이 지은 《공사견문록》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식암유고》는 김석주의 문인인 洪璠(1654~1714)의 부탁으로 農岩 金昌協(1651~1708)이 重刊하는 서문을 쓰면서, “어려서부터 辭賦를 학습

13) 《식암유고》1권에 7편, 23권에 1편, 別稿 부편에 30편이 수록되어 있음. 이 38편의 辭賦중에서 辭는 한편에 지나지 않고, 37편이 모두 賦작품인데, 대부분이 과거를 위한 賦[試賦]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들 작품은 1652년에서 166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고 한 편만이 1670년에 지어졌다. 즉 1662년은 殿試에 1등하여 공식적으로 典籍 벼슬을 시작한 때이므로, 현재 전해지는 그의 賦작품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1662년 이후에는 창작된 賦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金萬基는 <諡狀>에서 程式의 辭賦에 능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면, 《해동사부》에 수록된 작품과 김석주의 賦 창작 경향은 사뭇 다르게 보인다. 즉 김석주는 이미 벼슬을 시작한 뒤로 賦 創作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賦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해동사부》에 실린 失意와 不滿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겠는가? 이점 역시 편자가 김석주가 아님을 말해주는 방증이 될 수 있다.

하여 능히 오늘날의 진부하고 화려한 습관을 일소 할 수 있었다.(自少攻詞賦, 已能一掃近世陳腐熟爛之習)” 만 하였지 《해동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해동사부》는 우리나라 대표적 인 사부 작가들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최초의 우리나라만의 사부 작품집임에도 다른 문집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또한 의심을 더해준다. 그렇다면 김석주란 작가가 당시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문단에서 형편 없었던 사람인가? 그러나 전해지는 김석주의 문학적 평가는 매우 영예로운 것이 사실이다.<sup>14)</sup>

다섯 번째로 이 선집의 동기문제이다. 김석주는 서문에서 “여러 후배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 여러 작가들의 辭賦를 두루 읽고, 그 소리가 조화롭고 작가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골라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동사부》에 실린 작품들은 이러한 동기와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 선집은 朱熹의 楚辭연구 시리즈, 《楚辭集注》·《楚辭後語》·《楚辭辨證》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楚辭後語》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이 주희가 초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知潭州荆湖南路按撫使라는 散職으로 潭州에 폄적되었을 때이다. 당시 주희의 정치적 상황과 옛날 굴원과 수많은 작가들이 유배되었던 전통이 숨 쉬는 지역, 바로 瀟湘유역에서 그가 초사에 관심을 돌림으로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대신 위로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는 이전 《초사》에 대한 주석을 참고하여 다시 자신만의 해석을 가하였고, 이러한 전통을 이은 후세의 작품들을 모아서 자신의 동시대인들까지 넣어 《楚辭後語》를 편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편제 방식은 해동사부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수록하고 있는 작품의 숫자가

14) 農巖 金昌協, 《농암집》권23, <식암집서>에서 公(식암)의 문장은 溪谷(장유)만은 못하지만, 澤堂(이식)에 견주어 높이 평가하였고, 金陵 南公轍은 月沙 金廷龜와 象村 申欽에 나란히 평가하고 있다.

주희는 《楚辭後語》에서 52편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해동사부》는 57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김석주에게는 주희의 《초사》로의 방향전환에 버금가는 정치적인 좌절과 정신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인가?

다음은 위에서 본 김석주의 <海東辭賦序>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어떠한 작가와 작품들이 선정되어 실려 있는지 파악하여 그 편집 동기를 짐작하기 위하여 《해동사부》의 목차를 옮겨 본다.

- |                      |              |
|----------------------|--------------|
| 1. 李奎報               | 1) 祖江賦       |
|                      | 2) 春望賦       |
|                      | 3) 夢悲賦       |
| 2. 李穡                | 4) 閱志辭       |
|                      | 5) 觀魚臺賦      |
| 3. 李達衷               | 6) 礎賦        |
| 4. 李崇仁               | 7) 哀秋夕辭      |
| 5. 徐居正               | 8) 烏圓子賦      |
| 6. 姜希孟               | 9) 養蕉賦       |
| 7. 金宗直               | 10) 甲義帝文     |
|                      | 11) 擬登樓賦     |
|                      | 12) 觀魚臺賦     |
| 8. 成俔                | 13) 石假山賦     |
| 9. 南孝溫               | 14) 大椿賦      |
|                      | 15) 玄琴賦      |
| 10. 摠 <sup>15)</sup> | 16) 指環賦      |
| 11. 金駟孫              | 17) 秋懷賦      |
|                      | 18) 感舊遊賦送李仲雍 |
| 12. 李膺               | 19) 續擬恨賦     |
| 13. 李荇               | 20) 哀朴仲說辭    |
| 14. 閱齊仁              | 21) 白馬江賦     |

15) 摠은 茂豊正 李摠을 말하는데, 이렇게 작가를 표현한 것은 《동문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해동사부》가 서거정 이전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면서 《동문선》을 따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 |                        |              |
|------------------------|--------------|
| 15. 金麟厚                | 22) 七夕賦      |
| 16. 象村                 | 23) 哀黃秋浦辭    |
|                        | 24) 次李白悲清秋賦  |
|                        | 25) 歸田賦      |
| 17. 亡名氏 <sup>16)</sup> | 26) 思舊賦      |
|                        | 27) 竹樓賦      |
|                        | 28) 北歸賦      |
|                        | 29) 東林城賦     |
|                        | 30) 夢歸賦      |
| 18. 李春英                | 31) 逐麴醴文     |
| 19. 李安訥                | 32) 次王粲登樓賦   |
|                        | 33) 東門柳賦     |
|                        | 34) 鳳凰翔于千仞賦  |
|                        | 35) 孔雀賦      |
| 20. 趙纘韓                | 36) 哀鷹文      |
| 21. 趙希逸                | 37) 龍門賞雪賦    |
| 22. 張維                 | 38) 譴魅文      |
|                        | 39) 懷同甫賦     |
|                        | 40) 雪賦       |
|                        | 41) 次韻幽通賦    |
|                        | 42) 次姜天使弔箕子賦 |
|                        | 43) 鷗得腐鼠嚇鴻雛賦 |
|                        | 44) 烏嶺賦      |
| 23. 鄭弘溟                | 45) 瑞石山賦     |
|                        | 46) 魑魅喜人過賦   |
| 24. 李敏求                | 47) 南征賦      |
|                        | 48) 鐵甕城賦     |
|                        | 49) 夢筮賦      |
|                        | 50) 次愼素隱贈短駝  |
|                        | 51) 祭東淮申公文   |
| 25. 愼天翊                | 52) 夢筮賦      |

16) 無名氏는 바로 許筠. 이 다섯 작품은 《愼所覆瓶稿》권3에 모두 실려 있음.

- |         |             |
|---------|-------------|
|         | 53) 短驪贈東州山人 |
| 26. 鄭斗卿 | 54) 劍賦      |
| 27. 申最  | 55) 返故居賦    |
|         | 56) 和歸去來兮辭  |
|         | 57) 夢喻      |

한편 《해동사부》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고려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우선 보더라도, 이규보·이색·이달중·이승인 등 4명의 작가에 7작품을 싣고 있는데, 이들 작가와 작품의 내용을 보면 모두 유배된 시절에 지은 작품들이라는 점과 정서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동사부》가 만약 김석주가 편집한 것이라면, 이는 그의 정치적 권력욕과는 부합될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이해되거나 공감하는 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품들을 골라 읽는 한가롭고 고독한 정서가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로 그는 인조 12년(1634)에 태어나 숙종 10년(1684)에 5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운명하게 된다. 그는 25세에는 할아버지 金壇(1580~1658)의 상을 당하여 科場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28세부터이다. 1662년 29세에 殿試에 1등을 차지하였으나, 명성왕후와 사촌 오빠였기 때문에 吏曹에는 들지 못하고 典籍으로 벼슬을 시작한다. 그 후 正言, 副修撰, 持平으로 승진을 거듭하였고, 그의 30대는 비록 중앙부서에서 근무하였으나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하면서 40세 이전에는 별다른 문학이나 출판 사업을 했을 겨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결국 40세에서 51세까지 10년 동안 그는 위에서 본 서문들의 책을 편집하고 간행한 것이 된다. 현재 전해지던 없어졌던 위에서 간략하게 본 김석주가 쓰고 편집한 선집들은 참으로 많은데, 과연 그에게 이러한 많은 일을 모두 할 만한 정치적, 정신적인 한가로움이 있었던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의 서문에는 분명 58편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해동사부》 판본은 57편만이 존재한다. 첫 작품은李文順 즉 이규보의 작품이고, 마지막의 작품을 자기의 외삼촌 春沼의 <夢諭>라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그가 수록한 작가들은 모두 27명이 정확하다. 정확히 모든 작가들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의 한 작품을 刪除한 것이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또한 “八”자를 “七”자의 誤字로 보기에 字形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어찌 자신이 일일이 읽어보고 성조가 조화로운 것만을 뽑아 수록하였건만, 많지도 않은 작품수를 틀리게 기록한 것인가? 김석주의 글 쓰는 습관에 대하여 金得臣(1604~1684)은 “비록 몇 句의 문장을 짓더라도, 말에는 반드시 뜻을 세기고 생각을 깊이 하여 초고라도 서너 번을 바꾸지 않고는 내놓지 않았다. (雖作數句, 語必刻意潭思, 草藁不三四易, 不出也.)”라고 하였다고 한다.<sup>17)</sup> 이 문장은 김석주의 실수가 우연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일곱 가지의 의문들에 대한 그 어떠한 해명들도 모든 의혹을 풀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의 서문이나 발문이 붙은 해동사부의 또 다른 판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의 의혹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이 선집이 필자의 의심대로 김석주의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간단해 질 수가 있다. 누구일까?

### Ⅲ. 申最일 가능성

申最(1619~1658)는 위의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실려 있는

17) 金得臣, <終南叢志>, 강석중, <김석주의 부 문학 연구>, 한국한시연구 9, 264쪽에서 재인용.

작가이다. 즉 申翊聖(1588~1644)의 넷째 아들로 김석주의 외삼촌이 된다.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선집은 《초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진하게 풍기는데, 劉向과 王逸이 그랬듯이 자신의 작품을 자신들의 초사선집 마지막에 첨부하였다는 점에서 직감적으로 신취일 가능성이 있다.

申最는 《한국문집총간》에도 실려 있지 않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인이다. 字가 季良이고 號는 春沼이다. 아버지는 東陽尉 申翊聖이며 어머니는 宣祖의 셋째 딸 貞淑옹주이고, 할아버지는 申敏(1566~1628)이다. 신익성과 정숙옹주 사이에서 5남 3녀가 태어나는데, 신취는 그중 4남이다. 첫째 아들 申冕(1607~1652)은 尹暄(1537~1627, 윤두수의 아들)과 혼인하게 되고, 둘째 申昇은 李敏求(1589~1670)의 딸, 셋째 申昞은 黃一皓(1588~1641)의 딸, 넷째인 申最 자신은 沈熙世(1601~?)의 딸, 막내 申暲은 金世濂(1593~1646)의 딸에게 장가들어 명문을 이루며, 한편 첫째 딸은 洪命夏(1608~1668)에게 시집가고, 둘째는 姜文斗 셋째가 金佐明(1616~1671)에게 시집가서 김석주를 낳게 되니, 신취는 김석주에게 외삼촌이 된다. 엄청난 대 세력을 이룰 수 있는 문인 집안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숙부 申翊全은 趙昌遠(1583~1646)의 딸, 즉 인조의 계비(장렬왕후)의 언니와 결혼하였고, 그의 아들 汾厓 申晟(1628~1687)은 사촌 동생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석주와의 관계에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신취(申最)가 외삼촌이 되는 것이 이외에 김석주는 우의정 李厚源(1598~1660)의 딸과 결혼하고, 다시 신취의 형인 申昞의 장인 황일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니, 신취와 김석주의 관계는 가히 특별하다고 하겠다.<sup>18)</sup>

신취는 화려한 가문과 뛰어난 학식에도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신취

18) 이밖에도 김석주의 외숙 신취(申最)는 심희세와 결혼하여 두 아들 儀華(1637~1662)와 範華(1647~?)를 두는데, 첫째 아들 의화는 아주 절친하였으나, 2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고, 신범화는 김석주에게 庚申換局의 빌미를 제공해주어 김석주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신범화는 그림에 뛰어나 <松下睡眠圖>와 <女俠圖>가 국립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는 1635년(인조 13) 진사시에 3등으로 합격하고, 관학 유생으로서 1638년 청나라의 정명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1648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임되었다가 1650(효종 1) 6월 檢閱로 있으면서 관리 천거문제로 推考를 받기도 하며, 다시 奉敎로 임명되어 춘추관기사관으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윤 11월에 강화 유수 趙啓遠이 경연에서의 말실수로 사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연에서의 말이 누설하였다고 하여 파직되었다가 1651년에 다시 홍문관 正字에 오른다.

한편 효종이 등극하면서 인조의 충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던 金自點(1588~1651)은 金尙憲·宋時烈 등에 밀려 청나라에 이적행위를 하며 광양으로 유배되어 趙貴人과 더불어 崇善君 李激을 추대하려는 역모가 1652년 12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승선군은 신최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었다. 또한 추국하는 과정에서 김자점의 아들 世龍의 입에서 申冕이 역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고, 이것은 申最 집안을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곧바로 申最도 스스로 파직을 청하여 전원으로 물러났다. 얼마 뒤에 典籍으로 다시 서용되었다가 1653년 狼川(강원도 화천) 현감으로 나간다. 일 년 뒤에(1654) 다시 파직되고, 2년 뒤(1656) 7월에 함경도 都事로 부임한다. 이후 그는 본디 비장이 선천적으로 약했고 수차례의 배척과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여 1658년 4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행 삶을 겪는다.

李敏求(1589~1670)는 申最의 학식과 문학적 자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장을 지움에 있어서 천부적으로 독각을 이루어 조합해내는 문장들은 秦·漢에서 뽑아 지어냈다. 수시로 지명한 명나라 諸家에 출입하여 반드시 훌륭한 법도가 있었다. 더욱이 조나라 사람의 말에 뛰어나 거의 조화 속에서 나왔다. (於爲文, 天得獨至, 締構組織, 取裁於秦漢, 時出入盛明諸家, 必有法度可觀, 而尤善爲楚人語, 幾從神化中出來)”<sup>19)</sup>

19) 《東州先生文集》권9, <威鏡道都事申君墓碣銘 并序>. 또한 김석주도 <息庵

申晳은 사촌 형, 신취를 위한 祭文에서 “公은 어려서부터 문장을 다투어 홀로 辭賦에서 혁혁한 명성을 차지하여 일찍이 儒林에서 빛났다.(公以稚年戰藝, 獨擅詞賦, 赫赫之聲, 早彰於章甫.)”<sup>20)</sup> 고 서술하였다.

또한 김석주는 《春沼子集》을 간행하며 쓴 서문에서 “선생은 초기에는 詩律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廣陵(경기도 광주)에 물러나 있을 때는 실의에 빠져 우울한 처지에 있었다.(先生初不甚留意於詩律, 及退居廣陵時, 於牢騷佗僚之境.)”<sup>21)</sup>

이상의 세 문건에서 신취는 《초사》에 대한 관심과 특기를 가졌으며 辭賦에 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형 때문에 전원으로 물러나서 우울했던 상황은 능히 굴원, 가의 등과 같은 편적된 감정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취가 《해동사부》를 편찬했다면 아마도 그가 스스로 물러난 시기 1652년 이후, 더 정확히는 1653년 狼川현감으로 나간 이후 일 것이다. 이 시기 김석주는 겨우 20세일 당시로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동사부》에 수록된 마지막의 작가들을 보면, 물론 김석주가 신취를 스승으로 따르고 특별히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신취와 동시대의 사람들이고, 신취와 더 관계가 깊으며, 정

先生遺稿》권23에서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박식하였고 弱冠의 나이에 이미 易과 禮에 통달하여 象數에 밝았으며, 百家의 여러 기술을 두루 섭렵하여 깊이 꿰뚫지 않는 것이 없었다. 더욱이 고금의 역사에 뛰어나 그 本末과 損益을 능히 다 알았고, 또한 治亂의 까닭을 능히 추론하였으니 그가 말한 것은 찬란하기 그지없었다. 문장을 지음에 있어서 하늘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받아 깊고 총명하며 따를만한 법도가 있었다. 더욱이 초나라 말에 뛰어나서 거의 이를 변화 시킨 것들이다.(於學少而能博, 弱冠已通易禮, 明於象數旁及百家衆技, 無不淹貫, 尤長於古今紀史, 能悉其政法典章本末損益, 又能善推論治亂之所由, 亹亹乎其言之也, 於爲文天得獨至, 奧敏而有軌法, 尤工楚人語, 幾乎化之者.)”

20) 《汾厓遺稿》권9, <祭堂兄春沼居士文>.

21) 《息庵先生遺稿》권8, <春沼先生文集序>.

서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鄭斗卿은 77세까지 장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일찍 죽은 신취가 골라서 편집했을 수도 없지만, 이미 그의 문집이 1646년에 문인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었다. 게다가 《해동사부》에 실린 <劔賦>는 오늘날 전해지는 《東溟先生集》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가 주고받은 시문에서 이미 벼슬하기 전 20세 때 지은 것으로 밝히고<sup>22)</sup> 있으므로 편집에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 1651년 신취가 檢閱로 있을 때, 정두경은 그의 상관으로 副校理였던 관계이며, 또한 바로 10여 년 전 정두경이 39세(1635) 때 경기 都事로 나갔다가 실언하여 파직되어 등용되지 못하다가 다시 맡은 벼슬이 부교리였다.

愼天翊(1592~1661) 또한 광해군 때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광해군의 실정에 실망하여 사직하고 인조 조정에도 벼슬을 하지 않고 있다가 1654년에 부제학으로 다시 벼슬을 시작한다. 물론 《해동사부》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겪는 파직이나 유배는 아니지만 조정에 실망하여 낙향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그의 작품은 2편이 실려 있는데, <短驪贈東州山人>이란 작품은 바로 신취의 둘째 형 申昇의 장인 李敏求이다. 한편 東州라는 號는 1631년에 自號한 것으로 이미 김석주가 태어나기 3년 전이다.

李敏求(1589~1670)의 작품은 5편이 실려 있다. 李敏求는 芝峯 李粹光(1563~1628)의 아들로 화려한 벼슬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하지만, 그도 역시 1637년 49세 때 경기우도 관찰사로서 청나라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여 1643까지 7년 동안 永興 鐵籠城에 유배되었고 이후 사면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서용되지 못한다. 실린 작품들은 모두 유배시기에 쓰인 것으로 분명 《해동사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서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실린 작품은 <祭東淮申公文>으로 東淮는 바로 신취의 아버지 申翊聖의 호이다.

22) 《東溟先生集》권11, <走筆贈朴伯謙兄弟> : “我昔十七八, 始讀子長書 二十下筆作劔賦, 滄洲詞伯稱相如.”

鄭弘溟(1582~1650)은 松江 鄭澈(1536~1593)의 아들로 張維(1587~1638)와 함께 金長生(1548~1631)에게 동문수학하였으며, 尹斗壽(아들 윤훤의 딸이 신면과 결혼하여 형수가 됨)의 지우를 받아 명망이 높아졌던 문인으로, 52세가 되던 해(1633) 大司成까지 올랐다가 金堤 군수를 마지막으로 고향 昌平(전남 담양)으로 돌아가는데, 병자호란을 계기로 斥和臣의 처벌문제로 벼슬에 뜻을 잃고 그 후로는 제수되는 관직을 사양하거나 사직을 거듭하며 고향에 한거하였다는 점에서 《해동사부》의 전체적인 정서와 부합한다. 정홍명은 신최보다는 그의 아버지 申翊聖과 관계된 인물로 그와 주고받은 시가 몇 편이 전하고 있으며, 신익성(1644, 57세)은 그의 문집인 《畸庵集》의 序와 跋文을 지어주기도 한다. 게다가 정홍명은 앞서 보았던 李敏求의 여섯 시 친구에[六公詩伴<sup>23)</sup>] 한사람이었다.

이상에서 신최와 연대가 가까운 문인들, 즉 거꾸로 정두경에서 정홍명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들의 생몰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초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치적 좌절을 겪은 사람들로 모두 신최와 밀접한 친인척 관계를 보인 사람이거나, 거슬러 올라 갈수록 신최의 아버지 申翊聖과 긴밀하게 교류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바로 《해동사부》의 편자가 김석주가 아니라 신최일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석주의 정치적 성향과 방금 본 작가들의 성향은 분명하게 구분되며 김석주가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에서 열거한 《해동사부》의 목차를 보면, 다른 작가들은 모두 姓名을 정확히 기록한 반면에 유독 象村 漫號 를 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최에게는 자신의 할아버지, 申敏이기 때문이다. 편자가 분명히 김석주라면 이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23) 六公詩伴 : 《東州先生詩集》, 권3, <鐵城錄> 3, <不見二首> 시의 주에 申翊聖·朴淵(1592~1645)·李明漢·李昭漢·鄭弘溟·李植 등을 말함.

## IV.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왜 《해동사부》의 서문은 김석주의 문집에 들어 있으며, 왜 자신이 편집한 듯이 서술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신뢰는 조카인 김석주가 당시 재력과 출판을 가업으로 계승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이미 역모에 가담한 형을 둔 입장에 처해있어 중앙정부로의 진출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지병으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마지막의 몇몇 작가들은 당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신의 성명을 감추고 김석주의 이름으로 출판해 주기를 부탁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사부》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辭賦라는 장르에 속하는 작품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다른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석주는 마지막 작품인 <夢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특별히 덧붙였을 수 있다. 또한 김석주가 간행한 다른 사람의 문집에서도 조금의 언급도 없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김석주는 신뢰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랐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樂全堂集》·《春沼子集》을 간행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해동사부》를 보고 특별히 서문 등이 없었고, 자신도 역시 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작품수도 틀리게 기록한 것일 지도 모른다. 당시 그 어느 누구 보다도 김석주는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를 잘 알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김석주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아마도 이상하게 서술함으로서 자신이 직접 편집하지 않은 것임을 후세에게 알려 주려는 의도이었을지도 모른다.

## &lt;參考文獻&gt;

徐居正 등 편,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70~1982.

申用漑 등 편, 《續東文選》, 서울: 경희출판사, 1970.

- 김석주, 《해동사부》, 奎1447, 奎11536 태학사, 1982.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申最, 《春沼子集》, 奎6774(목판본), 奎6863, 7102(활자본)  
易重廉, 《中國楚辭學史》, 호남출판사, 1991.  
汪瑗, 《楚辭集解》, 북경고적출판사, 1994.  
束景南, 《朱熹年譜長篇》, 동화사범대학출판사, 2001.  
김성수, 《韓國辭賦의 이해》, 국학자료원 1996.  
Alfreda Murck, *Poetry and Painting in Song China*, Harvard Univ.  
Asia Center, 2000.  
강석중, <김석주의 부 문학 연구>, 《한국한시연구》 9, 261~275쪽.

<abstract>

We traditionally attribute the editor of *Haedong sabu* 海東辭賦, the initial anthology of ci 辭 and fu 賦 in Korea to Kim Seokjoo 金錫胄, then consider it as an peak of prosperity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Chuci* literature 楚辭文學. But I raised the seven questions in argument against the traditional conjecture, and deduced that the credible editor was Shin Choi 申最, last author in *Haedong sabu*. By this elementary monograph, I propose it as an first step forward to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Chuci* literature in Korea and annotated translation on *Haedong sabu*.

주제어 : 초사, 해동사부, 김석주, 신최